

98년 5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3월 10일)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 2) 각 국별 보고

2. 논의 사항

- 1) 평가-① 오티 ② 두 개의 여성대회 ③ 3.8학내 (문서 참조)
- 2) 에포레 (문서 참조) *각종주*
- 3) 총여 10주기 행사 *→ 주제: 강자 (5월 16일) 셋째주 (문집제작), 행사 환경장*
- 3) 새내기 받는 문제 *감상제 하기*
- 4) ~~예산안-중우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7%)
- 5) 페미니즘 카페-the other의 기획안 *6) '마녀' 제안 7) 대중인 제안
'생리' 퍼포먼스
(the other)*

3. 공지 사항

- 1) 12일 연대회의 여성모임 '열세번째'에서 준비한 강연을 들으러 갑시다.
제목: "나는나" (페미니즘 미술과 몸의 정치)
강연자: 유정미(!)와 박소현(이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오후 6시 제2공학관 B041
(서전)

4. 다음주에는...

- 1) 총여 10주기 행사 실무
2) 새내기 program.

5. 일정잡기

- 1) 6기 한총련 건설 및 전여대협에 대한 논의 (24일)
- 2) 세미나 합숙

“WELCOME TO YONSEI WOMEN'S UNIVERSITY!!” 평가서

1차 평가 : OT기획단 2월 28일

2차 평가 : 집행부 3월 4일

1. 준비과정

◆섭외 : 섭외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되었으나, 중간에 누가 누구를 섭외하고 지속적인 연락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리]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기자재 : 신상대 시설을 너무 믿은 관계로, 음향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없어, 기자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당일 엠프가 작동되지 않았고, 특히 신상대 시설은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일 깨닫게 되었다.

◆선전 : 역시나 선전 주체가 없는 관계로, 선전일이 적절하게 분담되지 못했다. 결국, 다른 일을 맡은 한두 사람이 선전일에 매달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전체적인 분담/준비 과정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선전물(PC)은 예쁘고 눈에 띄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각 학생회로 돌리기로 했던 '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선배들은 우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선전은 단순히 선전물을 만들고 붙히는 일만은 아닌데, 선전 주체가 없었던 관계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만 오고 대다수의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데에는 실패했다.

◆편집 : 편집 주체가 뒤늦게 확정되어서 우리의 의도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리플렛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졌으며, 또한 우리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나지 않았다. 재학생도 아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우리의 의도/기조가 보다 세심하게 고려되었어야 했으나 리플렛은 지면상 너무 부족하기도 했다.

◆기획단운영 : 애초에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준비과정을 집행부로부터 분산시키는 것이었으나 기획단 섭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집행부들이 모든 준비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

2. 당일 행사 진행

◆아침에 많은 사람이 늦게(!) 오는 바람에 변화된 틀을 공유하지 못했다. 당일 분담체계가 많이 깨졌다.

◆리플렛 배포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리플렛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그래도 준비과정에서 선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는데, 당일 리플렛 배포마저 '뿔꾸'가 나버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사물놀이 : 조명이 상당히 좋았으며, 사물놀이에 모두 감격하는 분위기. 오프닝으로 아주 적절했다.

◆영상물 : 처음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으나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짜집기 한 티가 좀 많이 나기도 했다.

◆좌담회 : 선배들이 출연한 것이 좋았으며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그러나 이후 김현미 선생님께서 약간 '홍분'하시는 바람에 내용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1부/2부로 나뉘어져 있던 판이 하나도 묶여 공연이 아닌 좌담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역시 그러다 보니까 황보령씨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각본같은 여성으로서의 일상에 틈새를 찾아낸다'와 같은 기조가 아닌, 단순한 '게스트 공연'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썰렁했음.

◆기자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일 황보령씨 공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사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3. 이후

평가가 거의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져 보다 세밀히 하지 못했다. 또한 섭외자들 '뒤통리'를 제대로 못했다. 황보령씨와의 평가는 불가능하더라도 좌담회팀과 다시 한 번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평가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항상 행사를 하면 모두 지치고 긴장이 풀려 평가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후 사업을 생각한다면 사실 평가과정이 과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준비일정에 평가일정도 함께 잡아 긴장이 풀리기 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발신: 아미

수신: the other(여성주의 문화 실험 ???)

♀여성주의 카페 기획안... ♀

#여성주의 카페... 어떻게 이용할까요?

- 우선 기존의 여학생 휴게실을 이용하던 여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예전처럼 낮잠도 즐기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더 좋은 공간이 되도록 바꾸려 합니다...!! ^^
- 우선.. 휴게실의 기능에 덧붙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주의 문화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겠지요.
- 영화 상영 계획.. 페미니즘 영화라든지, 괜찮은 영화를 한 편씩 정기적으로 상영했으면 합니다..
- 학술국과의 연계- 학내에 많은 여성학 관련 수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총여실에 드나들기가 약간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카페에 총여실에 있는 자료 목록들을 비치하면 그곳에서 목록을 찾은 뒤, 총여실에 자료를 찾으러 오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 날적이나 게시판 만들시다! - 서로의 취미나 공통된 관심사로 많은 분들이 모일 수도 있는 연계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친근한 장소라는 느낌도 풍길 수 있겠지요..
- 생리대 배치- 어떤 행사가 있다면 무료로 협찬 받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냥 화장실처럼 자판기하나 들여 놓는 것도...
- 기획행사-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베틀시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흠.. 또 멀 할 수 있을까나.. -_-;
- 이걸 갑자기 생각 난 건데요.. 그래도 이름이 카페인데.. 커피 자판기 하나 정도 들여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관 1층에서 커피 뽑는 것도 귀찮은데.. ^^;

#필요한 것들..

- 총여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것의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 우선 지저분한 지금의 여학생 휴게실을 깨끗이 해야겠지요..
- 그리고 페인트 칠을 새로해야 하고.. 지원이 빠방하다면 소파도 새걸로 했으면 합니다.
- 어떻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우선 탁자색을 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흠.. 또 생각이 안나네요... -_-;;

##급조한 기획안이라.. 엉망진창.. 첨이니깐 봐주셔용... 해했.. ^^

애포래의 3월 4일 제안서와 관련하여 총여학생회의 입장

보내는 사람: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

받는 사람:애포래

1. 형식상 '탁아기구'의 제안에 관하여

애포래는 현재 총여학생회와는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총여학생회와 함께 쓰고 있으며 그 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아 방학 때부터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논의의 결과를 3월 4일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때 받아 보았습니다. 일단 총여학생회는 애포래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보다 '탁아기구'라는 형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애포래가 총여학생회의 '탁아기구'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집행부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구로의 인정을 바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집행부의 경우

집행부라고 칭할 때 이는 기본적으로 총여학생회의 다른 국과 함께 총여학생회 안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포래'는 총여학생회가 바뀔 때마다 그 총여학생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든 '복지국'의 경우에도 총학생회가 바뀔 때마다 복지국장이 바뀝니다. 사업의 내용은 같더라도 푸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총여학생회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2)특별기구의 경우

지금의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가 특별기구를 두는 것과 달리 특별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고려하고 있는 바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경우에도 이번에 특별기구를 총여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만을 인정하였으며 이것의 근거는 직선으로 인준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애포래'가 지금 활동을 펼쳐내는 것을 볼 때 특별기구로 칭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총여학생회의 입장

애포래가 이제껏 해 왔던 '탁아운동'을 발제하신 대로 여성문제와 연관시켜 고민을 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이는 '자치단체'의 위상에 가장 걸맞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총여학생회의 관계의 정식화는 '자치단체 총회'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풀어내고 있으며 이를 애포래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애포래가 '육아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점이 놀이방 활동으로 귀착된다면 활동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아리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